연합인포맥스

"美 인플레, 갈 길 멀다...증시 올해 변곡점 맞을 듯"

윤영숙 기자 | 승인 2023.02.18 03:41 | 댓글 0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주식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 올해 주식시장이 한차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스노든 레인 파트너스의 황웅성(피터 황) 선임 파트너
[스노든 레인 홈페이지 캡처]

미국 투자 자문회사 스노든 레인 파트너스의 황웅성(피터 황) 선임 파트너는 17일(현지시간) 미 한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웹 세미나에서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로 볼 때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다"며 인플레이션 지표로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해 "한 차례 증시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 파트너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배경에는 "강력한 미국의 노동시장이 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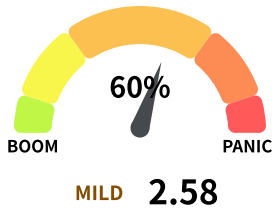
그는 노동시장의 강세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목표치인 2%까지 "갈 길이 멀다"라며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시장에 반영된 가정이 깨지면 밸류에이션 모델이 바뀌게 돼 주식시장이 갑자기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파트너는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오른 가운데, 최근 발표되는 지표와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증시를 낙관하지만, 시장이 이 추세를 유지하며 오르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S&P500지수의 현 밸류에이션은 현재 주가수익비율(P/E) 기준으로 18~19배 수준으로 역대 평균인 16.5배보다 높다. 특히 성장주의 P/E는 23.8배로 평균인 18.6배를 크게 웃돌아 상대적으로 비싼 영역에 들어온 상태다.

많이 본 뉴스

1 미 국채가 상승...FOMC 의사록 대기
2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인플레 억제 성공...
3 美 BPC "의회 조치 없으면 디폴트 시점 여름...
4 골드만 "부채한도 문제, 하반기 잠재적 조정 ...
5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인플레 억제 성공...
6 독일 2월 IFO 기업환경지수 91.1...8개월 만 ...



황 파트너는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에 대해 낙관한다며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분야의 성장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에너지 저장, 유전자공학, 블록체인, 반도체 부문 등이 앞으로 미래의 주식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황 파트너는 전망했다.

특히 최근 새롭게 부상한 AI의 챗봇 분야에서는 시장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엔비디아와 TSMC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 파트너는 달러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달렸지만, 달러-원 환율이 올해 1,350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며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파트너는 삼성증권 미주 법인장과 메릴린치 매니징 디렉터를 거쳐 금융위기 직전인 2017년에 투자자문사 스노든 레인 파트너스에 합류했다. 현재 스노든에서 투자 정책을 개발하고 고객의 자산 배분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

ys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1시 4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영숙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美 BPC "의회 조치 없으면 디폴트 시점 여름이나 초가을"	美 BPC "의회 조치 없으면 디폴트 시점 여름이나 초가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인플레 억제 성공할 가능성 있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인플레 억제 성공할 가능성 있어"...
골드만 "부채한도 문제, 하반기 잠재적 조정 위험"	골드만 "부채한도 문제, 하반기 잠재적 조정 위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인플레 억제 성공할 가능성 있어"	미 국채가 상승...FOMC 의사록 대기
[뉴욕마켓워치] FOMC '매파' 의사록 경계...주가↓국채↓달...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인플레 억제 성공할 가능성 있어"
뉴욕증시, FOMC 의사록 경계·실적에 하락...다우 2%↓마감	독일 2월 IFO 기업환경지수 91.1...8개월 만 최고
美 금융시장, 연준 7월 금리 6%까지 인상 전망 등장	외환당국, 역외 NDF 시장 점검..."시장 안정에 진력"
MS, 엑스박스 게임 엔비디아 '지포스나우'에 제공	FX스와프, 에셋 물량에 대체로 하락...연준 의사록·금통위 대...
월마트 분기 실적 예상 상회...가이던스 실망에 주가 2%↓	IRS 금리 전 구간 상승...美 긴축 우려·금통위 경계감
홈디포, 매출 예상치 하회...주가 개장 전 4% 하락	[채권-마감] 약세 스티프닝...금통위 전 증권사 매수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기억 | 편집인 : 안수훈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POWERED BY NC